

보이는 차이나

중국의 ‘랍스터(OpenClaw)’ 열풍, 투자 포인트는?

- OpenClaw 등장으로 중국 AI 산업은 ‘대화형 AI’에서 ‘업무 수행형 AI(Agent)’로 전환되며, 단순 사용자 경쟁을 넘어 실제 업무 자동화 경쟁으로 확대
- 중국 로컬 LLM·데이터·규제 환경의 구조적 우위와 빅테크·정부의 동시 대응 속에 중국형 AI Agent 생태계 확산이 빠르게 진행 중
- AI 사용량 증가 → 인프라 투자 확대 → 하드웨어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 성장 국면이 형성되며, 중국 AI 산업 내 테크 중심 투자 기회가 지속될 전망

중국 AI 산업의 뜨거운 랍스터 ‘OpenClaw’ 등장

중국 AI 산업에서는 최근 AI Agent 기반 서비스 확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오픈소스 AI Agent 프레임워크인 ‘OpenClaw’가 있다. OpenClaw는 컴퓨터 및 인터넷 환경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기존 질의응답 중심의 챗봇과 달리 파일 정리, 문서 작성, 정보 검색, 프로그램 실행 등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변화는 AI 활용 방식이 기존 ‘대화형(Chat AI)’에서 ‘행동형(AI Agent)’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Agent는 향후 디지털 환경에서 인간의 업무를 보조하는 ‘디지털 직원(Digital Worker)’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특히 OpenClaw의 상징이 가재(Claw)라는 점과 맞물려 중국에서는 최근 ‘랍스터 키우기(养龙虾)’라는 표현이 유행하며 OpenClaw 기반 AI Agent를 개발·활용하는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OpenClaw가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를 넘어 중국 AI 생태계에서 빠르게 주목받는 핵심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OpenClaw 등장



왜 중국에서 더 열풍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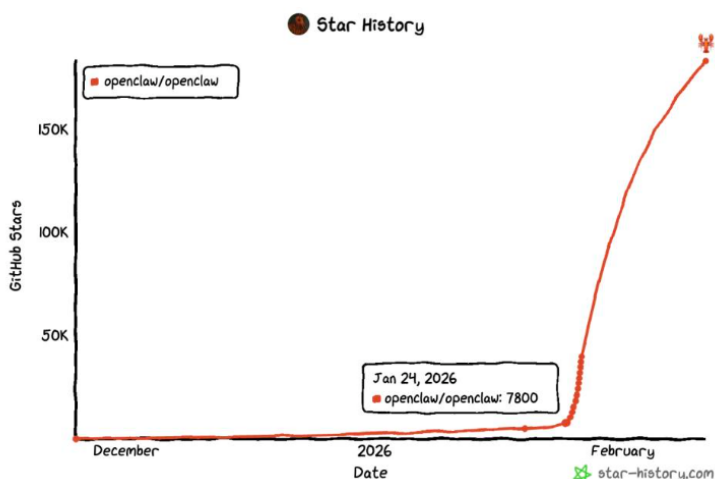
최근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생태계 내 AI APP 사용자 확보 경쟁을 강화하던 가운데, OpenClaw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올해 1~2월 춘절을 앞두고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홍바오(보조금)’ 이벤트를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 경쟁을 전개했다. 단기간 사용자 유입 확대에는 성공했지만, 이벤트 종료 이후 상당수 서비스에서 일일 활성 사용자(DAU)가 다시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유입 중심 전략만으로는 사용자 증가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반면 OpenClaw 기반 AI Agent는 보조금 없이도 실제 업무 편의성을 바탕으로 사용자 유입과 수요 증가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마케팅 유입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 효용에 기반한 ‘사용 지속성’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AI APP과 구별된다.

AI Agent는 기존과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기존 AI APP이 질문·응답 중심의 ‘소비형 서비스’였다면, AI Agent는 목표를 설정하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수행형 서비스’에 가깝다. 검색·정리·작성·실행까지 이어지는 실제 업무 흐름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사용자 체류 시간과 활용도를 동시에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AI 경쟁의 방향도 앱 출시나 트래픽 확보에서, 실제 업무를 얼마나 자동화할 수 있는지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그림 2. GitHub 스타 수로 본 OpenClaw의 급격한 확산



자료: GitHub,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1. OpenClaw 국가별 웹 트래픽 비중 및 증가율 (2026년 3월 초 기준):

국가	트래픽 비중	증가율 (MoM)
미국	16.29%	+611.21%
인도	12.16%	+603.55%
중국	12.08%	+1436.45%
독일	4.10%	+991.88%
캐나다	3.53%	+1259.18%

자료: SimilarWeb,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OpenClaw가 중국에서 유리한 배경은?

OpenClaw는 중국에서 자체 개발된 기술이 아닌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다양한 대형 언어 모델(LLM)을 연동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Kimi, GLM, MiniMax, DeepSeek, Qwen, Hunyuan 등 다수의 로컬 LLM이 존재하며, OpenClaw는 이를 유연하게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 알리바바, 텐센트 등 빅테크를 중심으로 구축된 클라우드 인프라도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더해지며, 모델과 인프라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모델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자국 LLM 생태계를 기반으로 AI 서비스 개발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용·데이터·규제 측면의 구조적 요인도 확산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로컬 LLM 활용을 통해 모델 호출 비용을 낮출 수 있어 비용 경쟁력이 확보된다. 또한 중국 내 데이터 접근성과 클라우드 연동이 용이하다는 점도 서비스 구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여기에 정책 및 규제 대응 측면에서도 해외 모델 대비 부담이 낮다는 점이 더해진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우위가 결합되면서 OpenClaw 기반 AI Agent 서비스는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국 빅테크와 정부가 ‘OpenClaw’를 대하는 법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텐센트는 AI Agent 서비스인 WorkBuddy를 공개하며 OpenClaw 기반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알리바바 역시 AI Agent 플랫폼과 토큰 기반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바이두는 Wenxin 기반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 역시 ArkClaw 등 자체 AI Agent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더 저렴한 클라우드 서버와 에이전트 전용 API를 출시하며 인프라 경쟁도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는 AI Agent 확산이 곧 클라우드·모델 사용량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반영한 전략으로 보인다.

정책 측면에서는 중국 내에서 기술 육성과 보안 통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적 정책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양회에서 AI Agent 확산 및 활용 가속화 필요성이 언급되며, 이른바 ‘롱샤(养龙虾, OpenClaw)’ 열풍과 맞물려 AI 에이전트가 새로운 생산성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정책적으로도 확인되었다. 또한 선전, 쑤저우 등의 일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AI 스타트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보조금, 클라우드 및 데이터 인프라 제공, 기업 유치 등을 통해 OpenClaw 기반 AI Agent 확산을 적극 장려하는 모습이다.

반면 중앙정부는 데이터 보안 및 통제 리스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AI Agent가 사용자 시스템과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일부 정부 기관과 국유기업에서는 외부 오픈소스 기반 AI Agent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정책 방향은 단순한 규제에 그치기보다 자국 기술 생태계 내로의 흡수와 통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을 중심으로 AI Agent 보안 및 신뢰성 기준 마련이 추진되고 있으며, 빅테크 기업들 역시 자체 AI Agent 플랫폼을 출시하며 빠르게 내재화를 진행 중이다.

이는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주권과 핵심 기술은 자국 통제권 아래 두려는 중국 특유의 AI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AI 산업의 ‘두존쿠’급 유행 사이클 속 ‘중국형 OpenClaw’ 확산 전망

중국은 신기술의 확산 속도와 시장 침투가 매우 빠른 시장이다. AI 트렌드 역시 글로벌 대비 더 빠르게 순환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OpenClaw 열풍 역시 일정 시점 이후 빠르게 식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 사례는 단순한 유행으로 보기 어렵다. AI 활용 방식이 ‘Chat 중심’에서 ‘Agent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OpenClaw 자체보다는, 이를 기반으로 중국형 AI Agent 플랫폼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OpenClaw와 같은 AI Agent 확산은 향후 중국 AI 산업의 수혜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AI Agent 확산은 산업 수요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업 자동화 과정에서 LLM 호출이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GPU, 데이터센터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일부 연산이 단말로 분산되면서 AI PC, 메모리, 엣지 디바이스 수요 증가 가능성도 존재한다.

투자 관점에서는 ① LLM 및 AI 모델 기업, ②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 ③ GPU 및 AI 반도체, ④ AI PC·메모리·엣지 디바이스 등 하드웨어 전반이 주요 수혜 영역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로컬 LLM 생태계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수요가 빅테크 중심으로 빠르게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AI Agent 외에도 향후 DeepSeek 등 주요 기업들의 차세대 모델 출시가 이어질 경우, 성능 경쟁과 사용량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며 산업 성장 속도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AI Agent 확산과 맞물려 모델 성능 고도화 → 사용량 증가 →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중국은 AI 모델·클라우드·하드웨어 전반에서 구조적인 성장 흐름이 이어지며, 테크 중심의 투자 기회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AI APP와 AI Agent 특징 비교

구분	기존 AI APP	AI Agent
핵심 역할	정보 제공 및 대화 (지식 전달·생성)	목표 수행 및 행동 (자율적 업무 대행)
상호작용 방식	단발성 Q&A (질문 → 답변)	목표 지향형 루프 (Goal → 계획 → 실행 → 평가)
운용 방식	사용자 단계별 프롬프트 입력 필요	한 번의 명령으로 다단계(Multi-step) 자율 실행
시스템 접근	챗봇 창 내 텍스트·이미지 생성 중심	비전 기반 UI 조작 (브라우저·앱·OS 제어)
컴퓨팅 구조	요청 시 일시적 연산 자원 사용	업무 완료까지 클라우드 상시 실행
LLM 활용 방식	언어 생성 및 이해 (Language Model)	추론 및 도구 사용 (Reasoning & Tool-Use)
수익 구조	구독/ 광고/ 일반 Token 사용	API 호출 증가 → 고단가 모델 매출 확대
비용 효율성	사용자 직접 검수 및 수정 필요	반복 업무 자동화 → 인건비 절감 (디지털 직원)
데이터 처리	플랫폼 서버 중심 저장	클라우드/ 로컬 환경 중심 실행
주요 활용 사례	번역, 요약, 검색, 콘텐츠 생성	리서치 자동화, 예약, 커머스·투자 운영 등
빅테크 포지션	모델 및 서비스 제공자 (Application)	인프라 및 게이트웨이 (Cloud & API Hub)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